

고령화 사회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 특성에 관한 연구

- 강남구와 강동구 공공시설의 노인대상서비스를 중심으로 -

이 준 민(상명대 박사수료) · 신 화 경(상명대 교수) · 박 미 선(상명대 석사과정)

우리나라는 21세기 이후 노인인구의 절대적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은퇴 후 늘어나는 여가시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의료·여가·복지·고용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지역사회 공공시설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는 노인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노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들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 노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여건은 매우 미진한 실정에 있다. 이제까지 노인의 복지는 대상이 저소득층 위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서비스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수동적인 복지서비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주로 시설복지 위주의 서비스와 저소득층을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가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적인 중산층 노인에게도 광의의 개념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이를 위해 노인복지의 대상을 일반 노인들에게까지 확대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현재 서울시 강남구와 강동구의 공공시설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현황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OK주민서비스시스템을 이용하여 서울시 강남구와 강동구의 공공행정시설, 보건의료시설, 여가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노인 대상 서비스에 대한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특히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분하고 각 세부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의료관련 서비스, 여가관련 서비스, 복지관련 서비스, 고용관련 서비스 등으로 분류하여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본 결과, 현재 강남구와 강동구의 공공시설에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각 지자체별로 서비스 종류에 차이가 있으며, 각 세부 프로그램별로 보면 이용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수혜자 특성별로 제한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현황을 위주로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노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향후 광의의 노인복지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된다.